

광주농협-송정농협-대촌농협, NH농협손해보험 2026년 TOP-CLASS 사무소 수상

안춘배 기자 | 승인 2026.09.14 12:08



광주농협-송정농협-대촌농협, NH농협손해보험 2026년 TOP-CLASS 시상식 후 기념촬영 모습(우측으로부터 문익주 총국장, 김순택 광주농협 조합장, 아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

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총국장 문익주)은 지난 8일 올 2분기 손해보험 사업 추진 우수사무소를 선정하고 TOP CLASS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광주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TOP CLASS' 시상식은 광주 관내 농축협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가장 우수한 업적을 달성한 농축협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엔 광주농협(조합장 김순택), 송정농협(조합장 차주철), 대촌농협(조합장 이환형)이 각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성과를 인정 받았다. 특히 대촌농협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농협 기념촬영 모습



대촌농협 기념촬영 모습

수상 사무소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인 실익 중심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며 농가 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고객 관리에 힘써왔다.

문익주 총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손해보험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수상사무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은 일선 농협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인에겐 실질적인 보장을 더하고 농협엔 든든한 지속가능 경영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